



타이어의 안전점검

—주행전 필히 타이어의 안전점검을—

기 술 부

1. 공기압의 과·부족은 타이어의 손상을 초래한다.

(1) 공기압부족으로 사용하면

타이어의 발열을 촉진시켜 박리(Separation)되거나 코드절상을 일으켜 타이어가 파열(Burst)되게 된다.

(2) 공기압과다로 사용하면

충격상이나 절상을 받기 쉬우며 발진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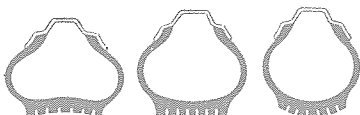
(3) 적정공기압을 유지하려면

1) 공기압은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최대하중시 지정한 공기압으로 정확히 조정하여야 한다.

2) 공기압의 점검은 타이어가 식어있을 때 하여야 한다.

3) 고속주행의 경우는 공기압을 3.0Lbs/in² 정도 더 넣어야 한다.

공기압부족 적정공기압 공기압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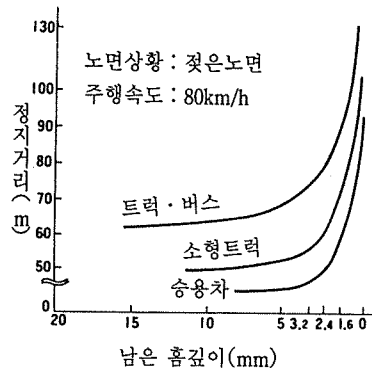
4) 밸브에서 공기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밸브캡을 필히 잠궈야 한다.

2. 마모한계 1.6mm 이하로 닳은 타이어는 미끄러지기 쉬워 위험하다.

(1) 마모한계 1.6mm 이하로 닳은 타이어는 특히 젖어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 다음과 같이 되어 위험하다.

1) 정지거리가 길어져 옆으로 미끄러지고 쉽고 (그림1 참조)

2) 타이어의 수상활주현상(Hydroplaning)이 일어나기 쉬워 위험하다.



(그림 1) 마모된 타이어와 정지거리

(2) 마모한계 위치표시 (Slip Sign : Tread Wear Indicator)

리브형(Rib)



러그형(Lug)



마모한계는 타이어 옆면의 “△”의 꼭지점이 가리키는 트레드(접지면) 홈속에 1.6mm 높이로 블록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마모되면 새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상처난 타이어는 주행중 파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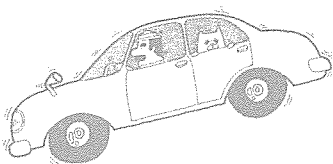
타이어에 못이 박혔거나 접지면 홈안에 돌 등의 이물이 박힌채로 주행하면 펑크가 나거나 상처구멍이 넓어져서 파열될 수 있다.

상처가 있는 타이어는 판매점에서 점검하여 상처가 카카스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새타이어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상마모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타이어의 위치교환을 해야 한다.

(1) 타이어의 이상마모(한쪽으로 치우친 마모)는 다음과 같이 되어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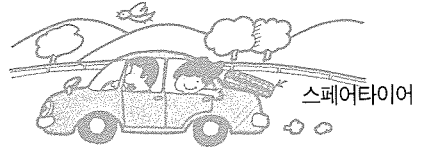
- 1) 이상진동이나 타이어 소음을 일으킨다.
- 2) 승차감이 나빠지거나 타이어 수명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 3) 특히 앞타이어에 이상마모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타이어의 위치교환을 해야 한다.



타이어 진동, 타이어 소음

5. 스페어타이어도 점검하여야 된다.

스페어타이어는 만일의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공기압, 남은 홈깊이, 상처유무 등을 충분히 점검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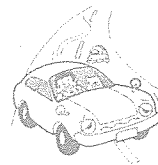
6. 휠의 손상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휠에 균열, 변형이나 손상이 있게 되면 타이어와 림이 잘 맞지 않아 공기가 새게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다.

7. 휠 밸런스에 이상이 있으면 조종이 불안정하게 된다.

휠 밸런스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바르게 조정하여야 한다.

- 1) 핸들 떨림이 발생하여 조종성 불량 의 원인이 된다.
- 2) 승차감이 나빠지거나 타이어가 이상마모 되게 된다.



“타이어의 손상이나 휠 밸런스의 이상 등 타이어에 관한 의문사항은 즉시 가까운 타이어 판매점과 상담하여야 한다.